



2024년 9월 1일(제1209호) 연중 제22주일(피조물 보호 ■ 위헌 기도의 날)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Don't pay lip-service!”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신명 4,2,6) 오늘 제1독서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해집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수차례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따르기를 주저하였기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들이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별다른 행동 없이 말로만 상대방에게 맞추는 걸 두고 ‘립서비스한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또 ‘실제 행동이나 진정한 의지 없이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말’을 두고 ‘립서비스’(lip service)라고 합니다. 이 ‘립서비스’라는 표현은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 속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마르 7,6)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입술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규정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이들에게 ‘마음’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간직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당에 가면, 또 그곳에서 기도할 하지만 하면 나에게 은총과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은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은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야고 1,17) 실제로 성당에서 기도할 때,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곧 평화와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선물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진정 나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군종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야고 2,26) 하느님께서서는 분명 믿는 이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기쁨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곧 하느님 말씀에 나의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인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십시오. 하느님의 법을 깊이 묵상하며, 읽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십시오.”(사제 서품 예식 중에서)



조해용(요셉) 신부  
철성(육군 제7보병사단) 상방 주임

- 제 1 독 시 신명 4,1-2.6-8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제 2 독 시 야고 1,17-18.21-22.27
-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 복 음 마르 7,1-8.14-15.21-23
-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일곱 번째 시집**

원컨대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이다지도 야만적인 지역에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 종들의 전구(轉求)를 통하여 드러내시어, 예전에 그들의 충성심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셨듯이 그들의 공적 경배를 통하여 모든 이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조선 순교자들의 전구로 공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아마 순교자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정성이 미약하고, 우리가 순교자들에게 전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계몽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박해 때의 순교자들에 대하여 어떤 기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신빙할 만한 증인이 없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신자들에게 순교자들의 전구하심으로 하느님이 주시는 기적을 얻도록 가르치면서 순교자들을 더욱 열렬히 공경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임금님의 맏아들, 즉 원자(元子)의 탄생을 계기로 다른 유배자들과 함께 귀양갔던 우리 교우들이 둘만 빼놓고는 모두 다 풀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의 맏아들의 탄생은 우리 왕국에는 큰 경사를 가져다 주었고, 유배자들에게는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이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괴악한 여인이 일으킨 박해도 다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교우촌이 그 여인의 고발로 거의 마을 전체가 체포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예전의 자유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벽 앞에서**

이 자리에서  
누구를 찾을까?

이렇게 멍하니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를 향할까?

어찌하지 못하고.

어찌할까?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쾌락의 정원



히에로니무스 보쉬(1450년 ~ 1516년)  
 패널 위 유화, 205.5 × 384.9cm / 미드리드, 프리도 미술관

이 작품은 3단 제단화로 왼쪽은 에덴의 동산의 아담과 이브, 중앙에는 지상의 세속적인 정욕/쾌락에 심취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쾌락의 결과로 지옥에 빠진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오른쪽 지옥 패널인데 굉장히 복잡한 작품을 지면 제한상 간단히 소개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연상되는 온갖 '죄'가 표현되어 있다.



나무인간 세부도

엉덩이 부분이 뺨 뚫린 나무인간 속에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또 새 머리를 한 인간이 인간을 삼키고, 인간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그 사람은 온갖 오물과 인간들로 가득 찬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에는 돈을 배변하고 있는 이가 보이며, 허영에 가득 찬 거울을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도 보인다. 이 그림은 인간이 죄 앞에서 얼마나 유약한지, 또 그 죄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의 몫임을 잘 표현해 준다.



인간 오물통 구덩이 세부도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다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다뤄진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다뤄진다.” (마르 7,15.21-23)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2주일: 맵호 김중시 신부

◆ 교구장 동정

- 은성대(제19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1일(주일)
- 사제평의회, 참사회  
 때·곳: 9월 3일(화), 교구청 회의실
- 60사단 방문  
 때: 9월 4일(수)

- 2024년 신입 군중사제 연수  
 때·곳: 9월 6일(금), 수원교구 어능성지
- 저작사 2지구 사제모임  
 때·곳: 9월 6일(금)~7일(토), 군중영성센터

“화해와 기쁨을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